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세션 4

사회 계약 이론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사회 계약 이론입니다.

좋아요, 이제 사회 계약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리주의에 대한 논의의 마지막에서 언급했듯이, 공리주의의 한 유형은 규칙 공리주의입니다. 규칙 공리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며, 이 규칙을 따르면 최대 다수의 쾌락이 극대화됩니다. 사회 계약 이론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따르고 개인과 사회 전체를 안내할 특정 규칙을 제공하며, 도덕적 의무와 정치적 권리에 대한 개념을 사회를 안내하기 위해 선택된 이러한 기본 규칙에 근거하도록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회가 사회를 안내할 기본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떤 종류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가장 평화롭고 조화롭고 생산적이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계약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회의 시민들 사이에서 어떤 종류의 합의, 공식적인 합의를 만들어 이를 달성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적용 문제, 권리 문제, 정의 문제와 같은 행위 공리주의에 만연한 문제 중 일부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사회 계약 이론이 다른 측면에서 성공한다면 말입니다. 사회 계약 이론의 주요 지지자로는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 존 롤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철학자 중 세 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마스 홉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내가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스페인 무적함대가 침몰하는 동안 그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588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끝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 여기서 죽을 거고, 그녀는 산고를 겪고 토마스 홉스를 낳았어요. 하지만 그는 잘 지냈어요. 그 남자는 약 9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 책, 레비아탄을 썼고, 이것은 그 책의 표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검과 삼지창을 든 캐릭터를 확대해서 볼 수 있다면, 그는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여서 사회를 안내할 특정 기본 원칙에 동의하여 마치 한 개인처럼 운영할 수 있는 사회 계약이라는 개념에 대한 좋은 이미지입니다. 홉스의 사회 계약 이론은 초기 근대 사회 계약 이론가들 사이에서 독특합니다. 그는 일종의 절대적인 정치적 주권을 옹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회 계약 이론가들은 통치받는 자의 동의와 심지어 반란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그건 홉스의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그는 혁명의 권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홉스와 관련하여, 홉스는 인간이 어떠한 법률에도 지배받지 않는 자연 상태라는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뿐입니다. 즉, 필요한 음식, 주거, 옷, 그리고 통치 권위가 없습니다. 인간 역사에 진정한 자연 상태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상황에서 삶은 어떨까요? 통치 권위가 없다면 어떨까요? 홉스에 따르면 그것은 전쟁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왜? 당신과 저는 어느 순간 같은 것을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자원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양의 상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경쟁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정말 원하고, 당신도 정말 원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그것을 위해 당신과 싸울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것은 전쟁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과 나쁜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자연 상태에 수백 또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피투성이의 엉망진창이 될 거야. 그래서, 그런 자연 상태에서, 홉스는 유명하게도 삶은 외롭고, 가난하고, 추악하고, 잔인하고, 짧다고 말했어. 하지만 누가 그걸 원할까? 누가 전쟁과 적대감의 상태에서 살고 싶어할까? 우리 모두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자연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지만, 나는 이를 위해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인간이 지능과 체력 면에서 거의 동등하다는 사실이 여기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내가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이길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똑같이 확신한다면, 그것은 갈등의 가능성 또는 가능성을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같은 것에 대한 우리의 욕망과 결합된 희망이나 능력을 평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 상태에서 특정한 적대감과 전쟁 상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 상황을 피하고, 그것과 함께 오는 두려움에 맞설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여기서 홉스는 우리가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특정한 기본적 권리와 법률이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자기 보존의 자유라고 말한다.

나는 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기본적 권리이며, 그가 거기에서 인정하는 기본적인 생명권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생명에 대한 권리, 자기 보존의 자유에 상응하는 근본적인 자연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보존할 의무, 파괴에 대한 기본적인 금지입니다. 이제, 그는 이 자연법과 이 자연권을 적절하게 근거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합리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능력에 기초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기본적 권리와 이 법은 실제로 무엇에 근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욕망과 우리의 합리적 능력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주장이며, 우리는 이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 자연의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처방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들의 특정 권리를 어떤 주권적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군주, 왕 또는 여왕으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권리를 이 정치적 주권자에게 교환하는 대가로 보호와 나의 자유의 보존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얻는다. 우리는 여기서 거래를 하고 있다. 계약이다.

그것은 협정입니다. 우리가 맺을 협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고, 이 주권적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보호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대가로 우리의 특정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자유를 잃더라도 보호를 얻고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군주가 특히 심각한 위법 행위로, 그 법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살인이나 강간을 하면 감옥에 가거나 처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자연 상태에서 대부분 삶을 특징짓던 그 두려움은 이제 이러한 법을 어긴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저 법을 준수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주는 이러한 법을 만들 것이고, 그 결과, 가장 중요한 법을 어기면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이전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사회적 계약 또는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헌법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계약이 하나 있지만, 우리는 온갖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안을 위해 특정한 자유를 거래했습니다, 맞죠? 내 차가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다면, 그냥 시속 150마일로 길을 달릴 수는 없잖아요.

아마 100이나 120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금지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자유를 포기했어요. 체포되거나 엄청난 벌금을 내거나,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제 자유는 더욱 제한될 거라는 걸 알면서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특정 한계를 넘지 않기로 동의해요. 도로마다 다르죠."라고 말했어요.

이런 보안에 대한 대가로, 저는 다른 사람들도 속도 제한을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그것이 저를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래입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동료들과 맺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하지만 홉스의 제안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한 명의 군주가 있고, 당시의 왕관은 그가 정치적 권위를 강화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홉스의 진짜 동기에 대해 약간의 의심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왕과 여왕의 신성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데 그다지 관심이 없는 다른 사회 계약 이론가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존 로크였는데, 그는 조금 후에 살았고, 그 역시 영국의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1690년에 시민 정부에 대한 두 논문을 발표했고, 시민 정부에 대한 두 번째 논문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문서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독립 선언서인 미국 독립 선언서는 본질적으로 로크의 정치 이론을 요약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로크가 생각한 바를 알아내는 좋은 방법은 독립 선언서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당시 사회 계약 이론의 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따라가는 데 매우 예리했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상을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이 새로운 세상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1, 2세기 전에 유럽인들이 발견한 것이었고, 그들은 이제 우리가 야만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부르던 대로 처음부터 시작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조금 다르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불의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럽의 미국인들은 우리가 새로운 국가를 시작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누구에게 인도를 구해야 할까요? 그들은 사회 계약 이론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로크의 버전이었습니다. 홉스와 마찬가지로 로크는 자연 상태라는 개념과 전쟁 조건, 자연권 및 법률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홉스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크는 자연권을 생명, 자유, 재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제퍼슨은 독립 선언서에서 재산을 행복 추구로 약간 바꾸어 조금 더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로크는 이러한 자연권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의무라는 기본 자연법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홉스의 직관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 자유를 보존하고, 인간 본성을 억제하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토마스 홉스와 매우 비슷하지만, 로크가 벗어나는 부분은 홉스의 절대적 정치적 주권 개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적절하고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통치받는 자의 동의라는 이념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저는 고맙게도,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임명된 대리인이나 정치적 대표자를 통해 스스로 통치하는 통치받는 자의 동의라는 로크의 이념을 따르죠.

그래서 우리는 입법자로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행정 기능으로서, 그리고 법에 대해 판단하는 판사로서, 심지어 로크가 구상한 권력의 균형을 갖춘 일종의 삼자 정부 체제를 갖도록, 지방, 주, 연방 등 모든 이러한 다양한 수준에서 우리를 섬길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몽테스키외와 같은 다른 사회 계약 이론가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통치받는 자의 동의라는 개념은 이 시점에서는 다소 새로운데, 마치 국민을 간접적으로 주권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를 다스립니다. 시민 행정관, 입법자, 집행자, 대통령, 총리, 그리고 당신은 저와 제 동료들이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저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당신을 권력에 앉혔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투표로 선출할 것이고, 우리는 당신을 몰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통치받는 자의 동의에 의한 일종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사회 계약을 초안한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들이고, 그 이후로 많은 세대가 지났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로크는 이 용어 또는 구절을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 묵시적 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개인이 이 사회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미국 헌법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원래는 수십 명만이 서명했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것은 모든 미국인을 대표합니다.

록은 묵시적 동의를 통해 내가 이 나라에 머물렀고, 모든 법률과 정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조항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번영했다는 사실은 내가 동의를 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계약 내의 규정과 이 통치자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의 동의로 만든 모든 특정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내 동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로크의 이론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란의 권리 또는 혁명의 권리입니다. 통치자는 동의에 의해서만 통치하기 때문에, 통치자, 통치자의 의무는 이러한 법률을 시행하고 국민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봉사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합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면, 그들이 거래의 그들 자신의 부분을 위반하고, 적절하게 통치하고, 법을 만들고, 법을 판단하고, 그것을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통치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우 억압적인 정권에 반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억압적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계약에서 벗어남으로써 한 일은 우리를 자연 상태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과 그들의 논리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모든 세월이 흐른 18세기 후반에 그들은 영국 왕실이 대표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군인들을 사람들의 집에 주둔시키고, 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등 너무나 학대적이어서 반란을 일으킬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혁명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것이 로크의 혁명권을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친 로크의 정치 이론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 시민이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로크에게 감사하거나 저주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은 열린 질문이며,

우리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혁명 전쟁이 정의로운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시죠, 정의로운 전쟁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의로운 전쟁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평화주의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때로는 정의롭다고 믿는다면, 혁명 전쟁이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요?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미국 독립 전쟁이 부당한 전쟁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회 계약 이론가는 존 롤스라는 최근의 학자로, 하버드에서 수년간 가르쳤고, 사회 계약 이론에 대한 획기적인 저서인 정의 이론을 썼습니다. 롤스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 계약 이론가라고 말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는 사회 계약 상황에서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믿는 기본 규칙이나 원칙에 대해 약간 다른 경로를 취합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정의로운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정의의 기본 원칙에 도달하기 위한 다소 새로운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그는 흄스와 로크처럼 자연 상태라는 개념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용한 허구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일종의 사고 실험입니다.

아무도 자연의 원래 상태가 어땠는지 모릅니다. 흄스와 로크조차도 그것이 일종의 사고 실험일 뿐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존 롤스는 다른 사고 실험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무지의 베일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어떤 원칙을 사회의 기본 지침 원칙으로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의 세부 사항, 자신이 어떤 인종인지, 어떤 성별인지, 몇 살인지, 장애인인지, 지능지수(IQ)가 얼마인지, 자신의 특별한 재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잊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원칙을 당신의 사회를 인도하는 원칙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억하거나 당신의 특정 특성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소수자일 수도 있고, 백인일 수도 있고, 재능이 있거나 어떤 면에서 재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롤스에 따르면 이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이 무지의 베일 사고 실험이 우리를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한 정의의 원칙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두 가지 다른 원칙을 정하고, 그 다음 이론의 핵심을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제도에 매우 철저하게 적용합니다. 그 중 하나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유를 극대화합니다. 팔을 휘두르는 내 권리가 코 끝에서 끝난다는 생각을 적용하거나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다른 개인의 자유와 일치하는 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원리는 그가 차이 원리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상쇄되거나 동반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항상 불평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불평등은 항상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차이 원칙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하나가 되도록, 모든 사람에게 유리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도록, 그리고 둘째,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부착되도록 배열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원칙은 학자적 관심, 토론, 논쟁의 측면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보다 훨씬 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불평등이 허용되는 한, 모든 사람이 그 불평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이롭습니다. 예를 들어, 벤 카슨과 같은 신경외과 의사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사회경제적 사다리를 훨씬 올라간 사람입니다.

오, 뇌수술을 하고 생명을 구하고, 무언가를 하고, 절차를 실행하고, 우리 중 나머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는 수년간, 수년간, 수년간의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지 능력과 꾸준한 손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고 심지어 신경외과 의사로서 백만장자가 되고 의학에서 다른 모든 훌륭한 일을 하는 사회에 있는 것이 분명 행복합니다. 저에게도 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운동선수와 연예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수백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음악과 영화,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는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롤즈의 사회 계약 이론의 맥락에서 이런 종류의 것들이 우리가 논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서비스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돈을 벌까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적절한가요? NBA 선수나 다른 프로 운동선수가 고무공을 금속 링에 넣거나 재나무로 소가죽을 치는 것으로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버는 것이 정말 적절한가요? 정말요? 많은 사람들이 벤 카슨, 물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경외과 의사, 그렇죠.

하지만 저는 클레이튼 커쇼가 시속 95마일의 공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으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론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이 많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차이 원칙의 두 번째 부분은 사람들이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되는 상위 계층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달성 가능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롤즈는 이 이론을 광범위하게 발전시켰고, 그것은 계약 이론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그것은 흄스와 로트의 기본 아이디어와 같습니다. 그 계약을 구성하는 어떤 종류의 공식적인 합의가 있을 것이고, 사회는 그에 따라 구성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주요 사회 계약 이론에 대한 꽤 좋은 것이며, 저는 우리가 여기서 인정해야 할 특정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계약 윤리는 적어도 폴리스나 시민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한 간단하고 그럴듯한 답을 제공합니다.

회의론자와 상대주의자에게도 도덕적 규칙을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을 포괄합니다. 제 말은, 그 특정 사회 계약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면, 이 모든 규칙이 당신에게 적용되므로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그것이 이 이론의 장점인 듯합니다.

또한, 이는 게임 이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고 실험인 죄수의 딜레마에서 포착된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활용합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최적이지 아닌 선택을 하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으며, 가장 합리적인 것은 실제로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며, 이는 나에게 이롭고,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고 완전히 자기 몰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최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최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이익 중 일부를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 계약 윤리에서 확인된 죄수의 딜레마에서 포착된 일종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회 계약 이론에 대한 중요한 강점과 통찰력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사회 계약 이론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몇 가지 사고 실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와 같은 역사 소설과 무지의 베일과 같은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를 통치하는 기본 원칙이나 규칙으로 우리가 정할 것에 대한 내 직감은 당신이 선택할 것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권리와 의무를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도덕적 규칙에 도달하는 일종의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정말로 도덕적 규칙인가 아니면 도덕성의 기초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정치적 명령인가? 그리고 그는 그러한 비판을 할 것이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특정 원칙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 원칙 자체가 정의롭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롤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평등한 자유와 차이 원칙을 선택했는데, 그는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궁극적인 지침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그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아마도 다수일 것이다. 아마도 롤스와 소수의 뛰어난 사상가만이 그 원칙에 안주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책을 읽을 때 그의 자비에 달려 있지 않은가? 이것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뒤에서 선택할 원칙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선택할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 원칙 자체가 정의롭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의하는 원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원칙 자체가 가장 정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도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비논리입니다. 저는 그것이 롤즈 이론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특정 원칙을 선택할 가능성이 그 원칙 자체가 정의롭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계약 윤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농촌 공리주의적 관점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모두의 삶은 이것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독창적이고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 아시다시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함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로 도덕성이 우리의 가장 깊은 도덕적 의무와 책임, 권리를 포착하기에 충분한가? 사회 계약 이론에는 상당히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이 헌법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정치적 관점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도덕적 의무, 보편적 도덕적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측면에서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절한 다른 이론으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할 일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4, 사회 계약 이론입니다.